



한국의 장자
송항룡

엑셀인지 프라이드인지 중고차로/ 서울로 학교로 설악의 산 속으로/ 미국의 대학으로 내달리어/ 나무를 심듯이 장자(莊子)를 심으며/ 정검다리 훌쩍 훌쩍 뛰어넘어서 이천오백년 전의/ 백수광부(白鬚狂夫)인지/ 꿈속에서 노니는 나비 장자인지.

一體의 명상이 되곤한다. 지금은 불상을 하나 모셔 놓고 무상암(無常庵)이라 부르면서, 그의 말대로 '심심할 때마다' 좌선을 하곤 한다.

24 년전, 다들 서울로 올라오는 시절에 겨우로 시골로 내려간 것처럼 송 교수의 철학하는 방법은 늘 독창적이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철학이 있어야 철학자' 라는 말을 강조해 왔다. 철학이란 사색하는 것인데, 지금 대학의 철학자들은 철학사를 연구하는 곳이지 사색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자로서 진리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본인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학문세계를 넓혀온 그에게 철학이란 어떤 의미일까?

"철학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세

마른 채구, 희끗한 수염 초아의 은자 연상
집필위해 시골로 내려간 '생노장(生老莊)
마음 안 잡힐 때면 토굴 무상암에서 좌선
'자기 철학이 있고, 늘 깨어있어야 철학자'



◇한국 노정철학의 권위자인 송항룡 성균관대 교수.

계와 마주 서지요. 그것을 켜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햇살이 찬란한 광명의 오늘이 있듯이 생활의 잠에서 깨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이 다름 아닌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철학에서 요구하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의 철학적 목적은 깨침에 있으며, 깨침의 세계에서 소요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송 교수의 평생에 걸친 사색의 발자취를 묶어 펴낸 책 이름이 <지금 바로 여기> 였듯이, 그는 '내가 딛고

선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진리는 죽은 진리에 불과하다'고 역설해 왔다. 그것이 노자의 도(道)이건, 부처님의 도이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잠된 도라고 할 수 없다는 다짐이다.

매순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진리와 마주하는 도교적 지인(至人)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서 문득, 임제선의 무위진인(無位真人)을 떠올렸다. 임제 선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卽今目前現用)'이 바로 만법의 근원이며, 이것을 깨달아야 경계의 장애로부터 해탈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네 마음을 경계가 없는 데 맡기라. 그리고 무궁한 세계에서 노닐라. 이것이 한없는 사념의 세계를 달리며 생각의 고풍을 풀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소요유(逍遙遊)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닌다는 말이다. 무하유지향에서 노니는 일이다. 가족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일이다.' (<지금 바로 여기> 중에서)

도심과 산촌, 고전과 현대를 마음대로 소요하며 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호흡해온 송 교수. 그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가 행해질 때 도래하는, 생사가 없고 시비가 없으며 지식도, 마음도, 하는 것도 없는 이상향 즉 '무하유지향'에서 사는 '세월 밖의 사람(世外人)'이었다.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며 상대적, 분별적 세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의 삶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삶이기도 했다. '지금 바로 여기'에 깨어서 사는 사람이 흔치 않기에, 그는 언제나 맹랑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의 저서 <맹랑선생전>에 나오는 '맹랑'이란 말은 <장자>에 나오는 '孟浪之言'에서 따온 것인데,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뜻이다. 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싶었던 자신의 분신, 맹랑선생의 기류가 바로 이 책이었다.

오랜 사색과 무위(無爲)의 수행을 녹여 낸 저술로 자신의 학문적 회향을 준비하고 있는 송 교수는 학자나 구도자, 생활인에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 것을 권한다.

"동양철학의 결론은 '내가 무엇이냐'인 것 같아요. 내게서 진리가 어떻게 느껴지는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지금 바로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이지요. 진리는 여기서, 나에게서부터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람 =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 = 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내 삶은
지금 바로
여기에



◇'무하초당(無何草堂)'이라 쓴 낙은 대문 앞에 선 송항룡 교수.



김 규화 시인은 '인상(人相)'이란 시에서 송항룡 성균관대(65, 유학중앙학부) 교수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광대뼈가 보일 정도로 바짝 마른 체구이다가 아무렇게나 자란 희끗한 수염, 시골 노인같은 천진한 웃음에 어울리는 하얀 고무신. '한국의 장자'로 불리는 송 교수는 생김부터가 초아에 묻혀서는 도교의 은자(隱者)를 연상케 한다. 그가 청우당(淸雨堂)이라고 부르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에서 졸 담배를 피우고 연신 커피를 들이키는 모습은 말 그대로 유유자적(悠悠自適)하다.

황필호 철학연구소 이사장이 '송항룡은 생불(生佛)이 아닌 생노장(生老莊)이다'고 추켜세웠듯이, 그는 한국 노정철학의 권위자이다. 이달 초에 펴낸 <남화원(南華苑)의 향연>을 비롯해 <한국도교철학사> <동양철학의 문제들>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의 사람들> <동양인의 철학적 사고와 그 삶의 세계> <맹랑선생전> <지금 바로 여기> 등의 목격담 저서를 내 대 표적인 동양철학자이기도 하다. 동양철학회장, 도가 철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가 시간만 내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릉리 초가로 은거하며 혼자 라면을 끓여먹고 지낸 까닭은 무엇일까. 10월 20일 청평호수를 사이에 두고 신선봉을 마주한 보납산(寶納山) 기슭, 송 교수의 초가에서 홍시를 얻어먹으며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송 교수가 이 곳에 터를 잡은 것은 1979년. 주 3일만 서울로 출강하는 이종(이) 생활을 해 온 송 교수의 집터에는 우인(雨人) 송진우 선생을 기념한 우인가림관이 들어서 있고, 직접 쌓은 108기의 돌탑을 따라 산쪽으로 조금 올라간 곳에는 토굴도 있었다. 적적할 때면 고독한 마음마저 내려놓기 위해 토굴을 하나 지었는데, 그곳에선 청평호수가 뻗어 내려다보여 저절로 물아일체(物我

▶한글도메인 : 편강탕

편 강 한 의 원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 한방피부과 · 침구과 · 한방신경정신과

출 연 자 : 편강한의원 서희석 원장님 (제 1회 출연)
방송내용 : 아토피와 편강탕
발 송 일 :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오후 4시 5분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 11월 1일 토요일 오후 8시 10분

[원장 서희석]
(031)487-7773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9번지 밀레니엄 프라자 3층 (중앙역 주차장 앞)
●평일 09:30-19:00 ●토요일 09:30-19:00 ●공휴일 10:00-16:00 ●일요일 격주(2,4주) 10:00-14:00